



법조인 동정

‘법치주의 불꽃’ 저자 윤성근 판사, 말기암 투병 끝 별세



〈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말기 담도암 투병 끝에 지난 11일 오전 별세했다. 향년 63세〉

윤 부장판사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. 1998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윤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.

윤 부장판사는 한국국제사법회·국제거래법학회 고문 등을 역임했고, 여러 차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) 전문가회의 대한민국대표단을 맡아 국제법 전문가라는 평을 받았다.

최근 윤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민구 부장판사(전 부산지방법원장)는 윤 부장판사의 언론사 기고 칼럼과 강연 녹취록, 34개의 추천사를 담은 전자책 ‘법치주의를 향한 불꽃’을 48시간 만에 펴냈다. 윤 부장판사는 인세 2천만 원을 복한 인권단체 ‘물망초’와 자폐인들을 지원하는 ‘한국자폐인사랑협회’에 기부했다.

강 부장판사는 이날 ‘그대의 육신은 우리와 이별하지만, 이제 금강석 같은 명문은 세권의 책으로 남아 한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빛나는 횃불이 될 것’이라고 SNS에 추모글을 올렸다. 그러면서 ‘그대로부터 명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당사자는 그대 이름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억할 것’이라고 남겼다.